

獻血과 學校保健

金 箕 洪

대한血液管理協會長·醫博

1. 獻血의 必要性

文明의 發達과 社會의 複雜多枝性은 필연적으로 各種 事故의 大型化를 가져오고 있다. 出血하는 患者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處置方法 中 가장 좋은 것은 全血의 輸血이다. 사람의 몸에서 직접 採血한 健康한 血液이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純粹해야 한다.

그러나 깨끗한 血液을 얻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先進國에 비교할 때 훨씬 적은 숫자인 인구의 0.9%~1% 즉, 약 30만 명의 혈액을 매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숫자는 국민생활 수준의 向上과 醫療技術의 발전 및 醫療均霑에 따라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血液의 需給問題는 國民保健上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75년도에 우리 나라에서 쓰여진 血液은 약 30만 병이다. 그러나 이 중 獻血로 충당된 것은 20%에 지나지 않는 6만 병 정도이며 80%는 賣血에 의존하였다. 賣血은 人道的 問題로 인한 社會의 物議 뿐만 아니라 醫學的인 면에서도 크게 問題가 되고 있다.

가장 큰 問題는 血清肝炎이다. 學界에서 조사 연구된 바에 의하면 全血 中 肝炎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賣血의 경우 8%~9%였고 獻血의 경우는 1%~1.5%였다. 肝炎이 死亡率이 높은 肝硬變症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할 때 누구나 순수하고 健康한 血液을 輸血받기를 원할 것이며 따라서 獻血의 重要性은 醫學的인 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年間 소요되는 血液을 완전히 獻血로 충당할

수 있을 때에 환자와 醫師는 마음놓고 血液을 輸血하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 獻血의 現況

우리 나라 獻血의 歷史는 지극히 짧다. 1970년부터 1971년 사이에 血液管理관계 法令이 제정, 公布되었으니 우리 나라 血液管理의 歷史 자체도 짧을 뿐더러 血液管理法 制定(70년 8월)당시 發足한 韓國獻血協會가 다각도로 活動하여 宗敎人과 學生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수요를 따르지는 못하였다. 74년에 들어서 대한赤十字社는 賣血을 전면 금지하고 獻血로 전환하였으며 75년 8월에 대한血液管理協會가 창립되었으니 우리 나라 獻血의 歷史는 5~6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歷史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獻血事業이 크게 伸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앞으로 成人이 되어 이 나라 이 社會에 이바지할 젊은 세대, 특히 學生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다는 데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

75년 4월부터 76년 3월까지 1년간 서울赤十字血液院이 獻血血液에 대하여 통계한 것을 보면 獻血者는 남자 66.15%, 여자 33.85%였고 年令別로는 20세 미만인 60.8%, 21~25세가 28.09%, 26~30세가 8.64%로서 30세 이하가 95% 이상이었으며 직업별로는 學生이 65.31%, 회사원이 3.47%, 상업이 3.07%, 기타 28.14% 등이었다.

이 통계에서 볼 때 피끓는 젊은이들, 특히 學生들이 헌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의 獻血事業에 밝은 서광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獻血은 해본 사람이 그 사랑의 眞價를 알게 되고 또 獻血이란 健康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남에게 傳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젊은 세대의 獻血은 일면 입으로만 愛 意를 떠들어대는 기성 세대에서 볼 때에 부끄럽기도 하거니와 일면으로는 어떠한 不意의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젊은이의 건강하고 싱싱한 피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血液管理 중사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3. 血液의 預置制度

그러나 이러한 젊은 學徒들의 獻血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 한창 공부하고 체력을 키워 나갈 나이에 獻血로 피를 뽑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유교사상에 젖어있는 父母들의 걱정이 되기 쉽고 학교 일과에 쫓기는 그들을 집단적으로 獻血 때문에 시간을 빼앗는 것도 獻血사업 중사 자로서는 무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血液의 수요는 매년 늘어만 가고 獻血者는 그 수요를 따르기에 너무나 미약한 상태이니 여기에 獻血 확대를 위한 새로운 對策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獻血 확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 血液의 預置制度이다.

血液의 預置制度란 순수한 獻血과는 조금 의미를 달리하여 日本 등 선진국에서 血液事業을 獻血로 전환하기 위해 獻血의 전 단계 조치로서 成功한 實例가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간단히 풀이하면 獻血된 血液에 대해서 獻血者가 일정한 기간 그의 사용에 대한 權利를 가지는 것이다.

먼저 獻血한 사람에게는 獻血證書를 준다. 이 獻血證書는 바로 血液의 預置증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증서의 소지자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건국의 어느 의로기관에서나 다시 찾아 무료(주사료, 관리비도 무료임) 수혈 받을 수 있으며 이 증서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양도했을 경우는 수수료와 관리비만을 받고 수혈해 주도록 되어 있다.

75년 8월 대한 血液管理協會가 發足할 즈음 保健社會部는 血液의 酬價를 1파인트(3백 20cc)

당 9천 7백원으로 약 3백%를 인상 조치하였다. 이 혈액 수가 인상의 배경에는 바로 내가 쓸 血液은 내가 健康할 때 預置하였다가 쓰자는 血液의 預置制라는 政策的 배려가 담겨 있었고 血液管理協會가 바로 이 預置制度를 주관하기 위해 基金을 관리하고 수납하는 업무를 맡도록 創設된 것이다. 預置制는 분명히 말해서 순수한 獻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제도로 혈액의 수급량이 어느 정도 충실히 충당되면 순수한 獻血로 전환하는 가장 빠른 方法으로 평가될 것이며 獻血로 血液의 수요가 완전히 충당될 경우는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血液을 싼값에 보급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4. 獻血과 健康

우리 나라에서 獻血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들 수 있겠으나 獻血에 관한 國民의 健康의식 결여를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옛부터 우리 나라에는 「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유교적 관념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하여 왔고 따라서 신체의 일부분을 너무 중요시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血液에 대한 관념은 더욱 강하다 피를 補藥이라고 믿는 것이다. 健康을 측정할 때는 血色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며 어떤 사람은 노루나 자라의 생피를 마시며 또 선지국을 먹는다. 또 어떤 사람은 補藥으로 피주사를 놓아 달라는 사람까지 있다. 물론 피는 귀하다. 失血을 많이 하면 生命을 잃게 되고 피는 다른 물건처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는 귀한 것도 그렇게 영양가가 많은 補藥도 아닌 것이다.

血液은 대체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및 혈장으로 구분되는데 혈장은 90%가 수분이며 단백질이 6~8%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이를 補藥이라고 먹고 마시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血液은 生體 內의 혈관과 조직 속에서 활동하여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본래의 機能을 할 때에만 이로운 것이지 먹고 마셔서 위장관에서 소화될 때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人體에는 체중의 약 8~8.5%의 血液이 존재한다. 체중 50kg이면 4천~4천5백cc의 혈액이 있는 셈이다. 이 혈액의 생존일수는 약 1백20일로써 따라서 매일 수명이 다된 적혈구 40~50cc씩이 저절로 파괴되어 몸밖으로 배출되고 그만큼 양이 새로 골수에서 生成되어 보충된다. 따라서 3백20cc를 헌혈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다.

3백20cc를 人體에서 채취하면 人體의 다른 組織體液이 즉시 이를 보충하며 赤血球는 7~10일이면 완전히 보충이 된다. 그래서 歐美各國에서 年5~6회의 獻血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學父母는 자녀의 獻血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하다. 어떤 경우 血液院에서 獻血한 學生에게 감사 또는 격려의 서신을 보내면 부모가 야단을 치니 제발 그런 것은 보내지 않아도 좋다고 하소연 하는 학생까지 있어 실소를 자아내게 하기도 한다.

血液管理協會는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도로 弘報活動을 펴는 한편 초·중·고교 교과서 개편시에도 이러한 血液에 관한 기본상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교과에 삽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뿌리깊게 박혀 있는 이러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꾸준한 弘報活動은 물론 學校保健에 중사하는 教師 또는 一般教師들이 직접 學生들과 學父母를 대상으로 獻血의 의의와 健康에 대해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전달하고 교육하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 血液事業과 學校保健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學校單位에서 獻血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는데 대해 무한한 可能性을 보고 있다. 이들 2世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獻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갈 때 獻血의 확대는 비토소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學生들의 獻血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순수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韓國學校保健協會에서는 전국 조직을 통해 매년 在學生을 대상으로 한 血液型 조사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 나라 血液管理의 歷史가

짧은 탓으로 아직도 우리는 전체 국민에 대한 血液型 센서스조차 해보지 못해 왔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럴 즈음 韓國學校保健協會가 學生들을 대상으로 血液型 조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지 표현할 수 없다. 이 조사 사업이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血液管理事業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며 앞으로 대한血液管理協會에서도 상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Rh음성 혈액형 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자료로서 앞으로 대한血液管理協會가 추진하고 있는 冷凍血液輸血 계획에 있어서 자료로서도 중요하지만 Rh음성자 본인을 위해서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保健教育이란 人間生命의 존엄성을 깨우치고 人權의 존중, 心身의 건강을 통한 健康의 保存이라는 全人教育의 하나라고 볼 때에 學校保健事業을 통해 血液과 獻血에 관한 2世國民教育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학생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나 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더욱 그 의의와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아무쪼록 紙面을 통해서나마 學校保健관계자 여러분들이 獻血과 血液預置에 대해 學生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줄 것을 빌어마지 않는다.

